

올해 프로야구 등록 선수 610명

작년보다 22명 늘어... 전체 포지션 중 투수가 314명으로 51.5% 차지
10개 구단 중 8개 구단, 작년보다 많은 선수 등록... NC가 8명 늘어
신인은 총 51명으로 전체 소속 선수의 8.4%... 작년보다 소폭 증가

2021년 KBO리그 10개 구단은 총 610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지난해 588명과 비교해 22명이 늘어난 숫자다. 전체 포지션 중 투수가 가장 많은 314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NC와 삼성은 각각 6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했다. 신인 선수도 총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KBO(총재 정지택)는 18일 2021년 KBO리그 소속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NC, 삼성에 이어 KT, KIA, SK, 한화가 각각 62명을 등록했다. LG와 롯데는 같은 60명, 키움과 두산이 각각 58명과 56명이다.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모두 지난해 보다 많은 선수를 등록했다. NC가 가장 많은 8명,

이어 삼성이 6명 늘어났다. 선수 숫자가 줄어든 2개 팀은 롯데, 두산으로 각각 3명, 1명이 줄었다. 소속 선수 중 투수는 314명으로 전체 선수의 51.5%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명이 늘었다. 지난해 소속 선수 588명 중 투수는 294명으로 50% 비율이었다. 10개 구단 중 두산, 롯데, 한화를 제외한 7개 구단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많은 투수를 등록했다. 내야수가 144명으로 전체의 23.6%이며, 외야수 102명(16.7%), 포수 50명(8.2%) 순이다. 신인 선수는 총 51명으로 전체 소속 선수의 8.4%다. 지난해 7.8%(46명)에 비해 소폭 증가

한 비율이다. 신인 선수 역시 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인 선수 포지션별 숫자는 투수 29명, 내야수 14명, 외야수와 포수가 각각 4명이다. KBO리그는 최근 4년 동안 2017년 이정후(키움), 2018년 강백호(KT), 2019년 정우영(LG), 지난해 소형준(KT)까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단한 선수들이 신인상 수상 영광을 안았다. 최근 신인 선수들의 활약은 리그 전체 흥행과 경기력에 든든한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올해 역시 51명의 신인들이 입단과 동시에 KBO 리그 소속 선수로 등록되며 5년 연속 순수 신인왕 탄생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코치는 13명이 줄었다. 올해 등록된 코치는 총 247명이다. LG가 가장 많은 30명을, 키움이 가장 적은 17명의 코치를 등록했다. /뉴시스



군산상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전경.

최상의 환경서 훈련 가능

군산상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준공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상고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이 준공됐다. 이번에 준공된 실내연습장은 연면적 991.8㎡, 1동(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약25억원이 투입됐다. 상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1층), 훈련장(2층), 스카우터동(별동)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군산상고 야구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군산상고 실내연습장은 사용연수가 오래돼 내부 노후화가 심각하고 경량판넬

건물로써 화재 등 안전에 취약했다. 또한 면적이 협소해 훈련에 제약이 받는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실내야구연습장 준공으로 군산상고 야구부 학생들은 미세먼지 등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태현 교장은 "우리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야구연습장을 준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야구부 학생들의 체력향상 및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잠은성 기자

벤투호 월드컵 3월 예선 또 연기... 6월 중립국 개최

AFC 조별로 월드컵 2차 예선 개최국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다 올해 3월 열릴 예정이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결국 또 연기돼 6월 한 곳에서 모여 치러지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전날 한국을 포함한 2차 예선 H조 국가 협회 대표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3월 열려던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6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F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각국 협회 대표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3월 개최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6월로 월드컵 예선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은 총 4개국이 5개 팀씩 8개조로 나뉘어 치른다. 지난 2019년 9월 처음 2차 예선이 시작됐고 국가별로 4~5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1월 이후 예선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3월로 연기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10월과 11월로 각각 연기됐지만, 결국 취소됐다. 결국 해를 넘겨 3월 월드컵 예선 일정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또 미뤄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별로 입국 시 최대 2주의 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다 올해 3월 열릴 예정이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결국 또 연기돼 6월 한 곳에서 모여 치러지게 됐다. 사진은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주NFC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또 최근 FIFA도 선수 안전을 이유로 소속 구단의 선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을 4월 말까지 연장했다. 3월 예선이 진행돼도 해외파는 합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H조에서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한 조다. 한국(2승2무·승점 8·골득실 +10)은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3승2패·승점 9·골득실 +3)에 이어 2주이다. 한국은 3월 25일 홈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한 뒤 30일 스리랑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3월 예선마저

전북체육회,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추진

전북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공모사업 신청 결과 도내에서 총 20개(기존 18개·신규 2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 기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시·군 신청으로 이뤄지는데 올해는 남원군과 순창, 군산, 김제, 고창, 완주, 정읍, 익산, 진안, 장수 등 20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특히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관리매니저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은퇴선수·생활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등)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 될 경우 비대면

수업 및 대체시설 활용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유인택 사무처장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전북현대, 새 마스코트 공개


프로축구 K리그1(1부) 5연패에 도전하는 전북 현대가 18일 새로운 캐릭터 '나이티'와 '써치'를 제작해 발표했다. 나이티는 뜨거운 열정을 느끼면 힘이 솟는 스피드레이서로 에너지와 도전, 친화력을 가졌다. 써치는 귀여우면서 스마트한 매력에 특징이다. 기쁨, 슬픔, 사랑, 놀람, 부끄러움 등 10가지 표정 변화가 LED를 통해 표출돼 팬들과 교감할 수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